

토종과일나무 보존실태 조사 및 원종 보존 방안

장영란* / 반려나무 대표

유대영 / 토종씨드림 활동가

김광화 / 무주토종연구회 회원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과일나무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헌으로 보면 삼국유사에 배나무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매실도 오랜 재배사를 가진 과일로 알려져 있다. 밤, 능금, 앵두 등은 만주지역, 복숭아와 살구는 화북지방이 원산지라 알려져 오랜 옛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귤 또한 제주도에서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토종과일나무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그동안 토종씨앗에 관한 조사연구가 어렵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토종과일나무 이야기는 안 들리고, 어린나무를 구하려 해도 구할 길이 없다. 토종과일나무가 얼마나 살아 남아있을까?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

* 장영란: 1998년부터 전북 무주군에서 농사지며 글을 쓰고 있다. <자연달력 제철밥상> <아이들은 자연이다> <자연 그대로 먹어라> <숨쉬는 양념. 밥상> <밥꽃마중>과 어린이책 <안녕, 밥꽃>이 있다. '토종과일나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갈 만큼 재미있다.

르는 백지상태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고사리를 끊으러 가면 처음 눈에 띄는 고사리가 있다. 그걸 허리 숙여 하나 꺾어 들고 허리를 펴면 저만치 다른 고사리가 보인다. 그렇게 고사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나하나 끊어나간다. 이렇게 토종과일나무 하나하나를 찾아갔다.

먼저 정부는 우리의 토종과일나무를 어떻게 보전하고 있을까? 농촌진흥청 산하 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되고 있는 과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실제 과일나무를 기르는 농장을 찾았다.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궁(宮)에도 찾아가고, 노거수도 찾아 토종과일나무의 현주소를 조사했다. 이렇게 조사하며 수집한 토종과일나무 유전자원을 시범포를 만들어 하나하나 심고 기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토종과일나무라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잡을 수 있었고, 원종 보전방안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토종과일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찾고 살려 나가려면 기록이 중요하다고 느껴 여기 정리한다.

연구 방법

2019년 3월 토종과일나무에 관심이 있는 30여 명이 모여 ‘토종과일나무 살리기’ 모임을 만들었다.¹⁾



[그림 1] 토종과일나무 살리기 모임

1) 다음 카페 ‘토종 과일나무 살리기’(cafe.daum.net/nativetrees)와 유튜브 채널 ‘우리 과일나무, 토종과수’에서 모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년에 4번 정기모임을 하고,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회원들과 토종과일나무 조사를 함께했다. 2019년 3월부터 전국을 다니며 토종과일나무의 종류와 특성, 현재 상태 등을 조사했다. 공공기관과 개인소유, 노거수까지 조사했다.

그럼 무엇을 토종과일나무라 할 수 있을까? 개량종이 들어오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 땅에 있던 품종을 중심으로 찾았다. 그 기준은 조선 후기에 쓰인 <임원경제지> 중 <만학지>를 참고하였으며, 산과일로 불렸던 나무 역시 토종과일나무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1. 토종과일나무 유전자원 보존실태 조사

가.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산하에 과일나무 유전자원포가 있다. 그곳을 찾아갈 때마다 조사단은 실망이 컸다. 기관의 과일나무 담당자가 토종 유전자원에 관해 모르거나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아있는 토종자원도 경쟁에 밀린 별 쓸모없는 유전자원이라, 사라지면 그뿐이라 여긴다.

그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있는 능금나무를 보러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완주로 옮긴 뒤 본 조사단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토종과일나무가 얼마나 외면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종유전자원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포장 안이건 서류상이건 토종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과일나무 화상병과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방문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에서 제한적이거나 검색해 볼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을 방문하여 유전자원을 직접 확인하였다. 농업유전자원 서

비스시스템에서 정리되어있는 토종과일나무 종류와 유전자원 보관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 등록 토종(재래종)과일나무 종류 및 보관기관

구분	종류(종)	확인일	유전자원 보관기관	
			농촌진흥청	그 외
배	약 80	2019. 8.30.	과수과, 배연구소	-
사과	-	2019. 8.19. 2019. 8.30.	과수과, 사과연구소	-
복숭아	14	2019. 5.10.	과수과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포도(머루)	7	2019. 5.10.	과수과	-
감	320	-	감연구소, 배연구소	-
굴	30	-	감굴연구소	제주농업기술원
살구	11	2019. 5.10.	과수과	-
앵두	-	2019. 5.10.	-	-
자두	3	2019. 5.10.	과수과	-
매실	322	2019. 5. 3.	과수과, 배연구소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대추	40	-	-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양앵두	4	-	과수과	-
으름	25	2019. 5.10.	과수과	-
모과	1	-	-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석류	20	-	-	전남농업기술원
다래	1	-	-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핵과류실은 토종이라 할 만한 자원이 없었다. 장과류(포도)실에는 머루가 있으나 나무 이동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강전정¹⁾을 한 직후였고, 생존여부 파악이 안 되었다. 인과류실은 1,400가지 자원 가운데 토종과일나무는 능금나무 두 그루와 세금정 한 그루가 있다.



[그림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과류실 유전자원포장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경북 군위군)는 유전자원포 개량 중이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전남 나주시)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감연구소(경북 상주시)는 과일나무의 화상병으로 인해 방문이 거절되었다.

2)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토종과일나무 목록²⁾을 받았다. 2019년 5월 기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과일나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모두 68가지 과일나무에 대한 자료로 각 지역에 자생하는 과일나무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 기타 기관

- 매실유전자원포(전남 순천시): 선암매 실생과 순천지역 매실유전자원을 모아놓았으나 담당자가 전체 수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 대아수목원 후계목 동산(전북 완주군): 은수사 청실배 후계목이 1m 이하 간격으로 밀식되어 심겨 있다.
- 전통수목양묘장(경기 남양주시): 궁이나 능에 심은 나무와 식물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시범포를 만들 때 참고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전북 전주시): 고속도로공사로 훼손될 위치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어 현재 다양한 수종과 식물종을 관리하고 있다.

1) 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새 눈이나 새 가지의 발생을 촉진하는 전정법이다.

2)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dsa.or.kr)-농업실용연구지원-농업실용연구총서 부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약용자원연구소(경남 함양군): 산야초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 원주농업기술센터(강원 원주시): 총 3회 방문하였으며, 토종과일나무 번식법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 한밭수목원 특산식물원(대전광역시): 천연기념물인 나무의 후계목을 모아놓았으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나. 재배농가

토종과일나무를 심어 기르는 농가를 찾는 첫 시작은 어려웠으나, 농장 한 군데를 찾으면 다른 농장으로 연결되는 눈덩이표집이 이루어졌다.



모임 단체사진(무주 헛개나무농장)



삼목 실습(충주 산유화농원)

[그림 3] 토종과일나무 재배농가 방문

농가가 토종과일나무를 키우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농장주의 개인 소신이 있거나 부모 대에 심은 나무라 그저 베지 않고 둔 곳도 있었고, 돌배 농장, 개복송아 농장 처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하는 곳도 있었다. 농가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토종과일나무 재배 농가 현황

지역		작물명 (품종명)	방문일	비고	
강원	인제군	산돌배농원	돌배	2019. 3.26.	산에 자생하는 돌배를 선발해 접붙임
	평창군	평창농가	능금	2019. 3.27.	민가에서 능금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기르고 있음
	홍천군	오얏꽃피는 마을	오얏, 참배	2019.10.24.	오얏(李)성씨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옴
		자운마루	돌배	2019.10.24.	홍천지역 돌배 실생을 심어 우수자원으로 선발함
	삼척시	도계농가	오얏, 살구	-	토종의 실생묘 생산을 하여 나누고자 함.
경상	문경시	문경농가	오얏 (록리)	2019. 3.13.	허균의 『도문대작』에 나오는 노랑계 익는 오얏임
전라	광양시	백운배연구회	돌배 (백운돌배)	2019. 4.22.	동네 고목 돌배나무 후계목으로 돌배농사 지음
	무주군	헛개나무농장	헛개나무, 다래, 꾸지뽕	2020. 4. 6.	-
	보성군	보성민가	가래나무 (쪽가래나무)	2019.10. 3.	부모가 심은 나무를 유지함
	완주군	홍도원	개복송아 (수양홍도)	2019. 3. 9.	묘목, 즈믄, 생과 등 다양하게 상업적으로 성공함
	장흥군	이영동농민 농장	감, 무화과, 모과, 대추, 꾸지뽕	2020.10. 3.	평생을 남도씨앗을 수집하고 토종나무도 모음
	정읍시	희망농원	머루 (남향)	2019. 5.10.	약용으로 쓰이는 중국 토종임
충청	충주시	산유화농원	오얏 (열녀목)	2019. 6. 7.	씨 없는 열녀목임

다. 노거수

〈표 3〉 토종과일나무 노거수 현황

		지역	작물명 (품종명)	방문일	비고
강원	인제군	인제읍 민가	무심이	2019. 3.27.	-
	경상	상주시	상주꽃감농원	감	2019. 9.12
서울	종로구	창덕궁	살구/돌배 은행/뽕나무	2019. 7.19.	성정각에는 살구나무, 후원에는 돌배나무가 있음
	중구	덕수궁	살구	2019. 6.24.	살구 알이 작음
전라		백련사	돌배	2019.11. 1.	보호수
	무주군	백운산	돌배	2019. 4.20.	화전민 터에 위치
		오도재	개다래	2019. 7.29.	자생
	순창군	강천사	모과	2020.10.	300년 넘었다는 기록
	완주군	위봉산성	배(위봉배)	2020. 2.	민가에 한 그루 남음
	장흥군	장흥 민가	청배	2020.10. 3.	대를 이어 내려온 나무
	진안군	은수사	청실배	2019. 9.28.	천연기념물, 이성계가 직접 심었다는 기록
	충청	금산군	보석사	은행	2019.11. 2.
제천시		제천 단리 야산	대추(산대추)	2019. 6. 7.	자생 산대추나무 군락



[그림 4] 청실배나무(은수사) 꽃과 열매

2. 토종과일나무 기준 제안 및 관찰

정부연구소, 개인 농장, 노거수를 찾아다니면서 토종과일나무에 대한 기준을 잡아 갔다. 토종과일나무에 대한 기준점 제시하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본다.

기준점 1) 일제강점기에 개량종이 들어오기 전 이 땅에 있던 과일나무를 중심으로 찾고 연구한다. 조선 후기에 쓰인 <임원경제지> 중 <만학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점 2) 오미자농가, 토종다래농가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전에는 산과일로 불렸던 나무 가운데 과일나무로 분류할 만한 나무 역시 토종과일나무로 본다.

- 오얏나무

임원경제지 만학지에서 다루는 첫 과일나무가 오얏나무다. 전국 지역마다 오얏이 있을 정도로 삶과 가까운 나무이며, 지역마다 이름이 각기 다르다. 현재는 ‘오얏’이란 이름조차 사라지고 개량종 이름인 ‘자두’라 한다. 지역마다 고야, 꽤, 개울타리, 응예, 열녀목 등 여러 이름, 여러 품종이 있다.

- 살구나무

조선 때 세자가 사는 집인 동궁에 심어 길렀다고 전해진다. ‘고향의 봄’ 노랫말처럼 동네마다 있던 나무인데 대부분 사라졌다. 북한에는 회령백살구라는 천연기념물이 있고, 육성하여 평양 가로수의 80%가 살구나무이다.

-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는 수명이 짧아서 노거수가 없다. 개복숭아나무는 전국에 자생하고 있으며, 따로 심어 기르기보다 핵과류 밑나무로 많이 쓰인다.

- 대추나무

조선 시대에 대표적인 상업용 과수였고, 전국 민가에서도 한두 그루 심어 기르던 나무다. 한동안 유행한 고자리파리병으로 노거수 대부분을 베어내 지금은 찾기 힘들

다. 다행히 조상이 심은 대추나무를 아직도 살려둔 농가가 있어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알이 잘아 약대추로 알려졌지만, 열매가 작다는 이유로 언제든 베어질 위기다.

- 배나무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고유의 배나무가 있으며, 특히 돌배나무는 오래 살아 노거수가 많다. 과일로는 배에 밀리지만, 돌배나무는 약효가 좋아 약용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돌배나무농장도 많은 편이다. 돌배나무는 품종이 많아 과일 또한 크기가 콩알만 한 배부터 제법 굵고 연한 배까지 층이 다양하다. 산돌배, 돌배, 문배, 참배 등 여러 품종이 있고, 지방마다 깨깨우리, 고실네, 취앙네, 독배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 능금나무

고려 시대 기록에서부터 능금, 내(柰), 멧, 사과, 빈과, 핑구리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한다.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 말 서양사과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자란 나무를 ‘능금’이라 통칭한다.

수명이 길고, 전국에 분포되어 자랐지만 가장 빠르게 사라진 나무다. 사과연구소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능금³⁾과 세금정 2가지만 남아있다. 농촌진흥청이 수원에서 완주로 옮겨오면서 자하문능금이 사라졌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능금은 금, 흥, 수(水), 밀(密), 흑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이 있었다고 한다.⁴⁾

야생능금으로는 삼엽해당(아그배나무), 야광나무(만주해당, 매자나무), 제주아그배나무(서부해당, 좁아그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사과나무의 밀나무(대목)로 삼으면 좋다고 하여 자원을 찾고 있다.

- 감나무

추운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 감나무가 있다. 감나무는 단위결과성⁵⁾이 높고, 수명

3)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능금’이라는 품종과 ‘세검정’이라는 2가지 품종이 있었다. 능금은 품종명이 아니라 옛 사과나무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기에 이상하지만 원예원에서 부르는 대로 적는다.

4) 이호철 「한국능금의 역사 그 기원과 발전」 67쪽을 참고하였다.

5) 속씨식물에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하여 씨방이 발달하여 열매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 길어 노거수가 많다. 최근에는 강화에서 장준감, 문경에서 비단감을 키우는 것처럼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감나무를 선발·육종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는 상주 ‘하늘아래 첫감나무’이며, 씨 없는 노거수다.

- 모과나무

노거수가 여러 곳에 있어 향후 노거수 씨앗을 이용한 후계목 번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모과나무는 씨앗으로 심어 번식해도 어미나무를 닮을 확률이 높다.

-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외래도입종이고 우리 고유나무로 가래나무가 있다. 북한에는 쪽가래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가래나무에 관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하다.

- 개암나무

옛이야기에 종종 등장하는 나무다. 전통수목양묘장에 따르면 조선왕조 제사상에 개암과 비자가 올랐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던 과일이나 이번 연구에서는 열매를 제대로 맺는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퇴화했다. 전국 산길에서 자생한다.

- 상수리나무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류 나무이다. 산에 자생하는 나무가 많으며 노거수도 많다. 큰 산에서만 자라는 졸참나무 씨앗을 심으면 들판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 머루

전국 산야에 자생하는데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머루를 찾아내진 못했다. 머루는 껌꽃이로도 잘 자란다.

- 다래

전국의 큰 산에서 자생한다. 최근 삼림청과 강원도가 선발·육종하여 토종다래농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다래는 껌꽃이와 뿌리 번식 모두 잘 된다.

이외에 매실나무는 전국에 다양한 품종이 있고⁶⁾, 산초나무는 전국 산야에 자생하며 남부지방에는 제피나무가 자생한다. 밤나무는 전국에 자생하고 있고, 앵두나무는 가정에서도 많이 심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찾지 못했다. 포도 또한 신사임당 그림에 나오는 재래종 포도를 찾지 못하였고, 남부지방의 석류나무, 굴나무, 유자나무, 비자나무, 무화과나무는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자는 선발 육종한 품종으로 생산하는 농장이 많은 편이며 산에 흔히 자생하는 까닭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3. 토종과일나무 유전자원 시범포 조성

시범포는 전북 무주군 산자락에 있으며, 다섯 다랑이로 이루어진 다랑이는 1,000평을 밭으로 바꾸어 조성했다.



[그림 5] 시범포 조성

가. 시범포 운영

1) 토양관리

20년 동안 유기재배 논농사를 짓던 땅으로, 무경운 자연농법 초생재배로 토양관리를 하고 있다. 목초액과 숯으로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고, 유기물 멀칭(부엽토, 마른풀, 왕겨, 참나무껍질 등)과 자연미네랄 공급(패화석, 바닷물, 아미노산 등)을 통해 토양에 영양을 준다. 어린 나무 사이에 나무와 공생하는 산야초를 함께 심어 나무

6) 안완식 <우리 매화의 모든 것>을 참고했다.

아래 땅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땅에 영양을 주기 위해 콩과식물로 콩, 완두, 헤어리베치를 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땅에 지렁이가 많아 멧돼지가 단골손님이다. 시범포에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한 까닭이다.

어린나무가 자라면, 숲 정원으로 가꾸어갈 예정이다. 키가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 그 아래 여러해살이 산야초가 서로 공생하면 좋겠다. 다만 어떤 나무 유전자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미리 계획해 심지는 못하고 나무 유전자원(씨앗, 뿌리, 묘목, 접수)을 구하는 대로 어미나무를 복원하면서 심어나가고 있다.

시범포는 해발 400m에 위치해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토종과일나무를 2~3그루씩 심어 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공생나무 혼식

밭둑에는 자연생태계처럼 여러 가지 나무가 섞여 자랄 수 있게 한반도에 자생하는 자생나무들을 심고 있다. 오리나무, 산초나무, 참죽나무, 화살나무, 참회나무, 개암나무, 산목련, 모감주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무궁화, 뽕나무, 가창박달나무 등을 심었다.

3) 산야초 섞어심기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능이 있는 파속식물인 부추, 두메부추, 달래, 쪽파, 마늘, 야생파, 대파 등은 과일나무와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 섞어짓기 좋다.

소득 작물인 도라지, 더덕, 어성초, 파드득나물, 작약, 산작약, 참나물, 잔대, 당귀, 눈개승마, 참취, 삼백초, 방풍, 양하, 참나물, 머위를 심어 나무와의 공생관계를 실험해보고 있다.

그 밖에 꽃이 아름다운 우리 산야초인 비비추, 층꽃, 금낭화, 구절초, 감국, 쑥부쟁이, 초롱꽃, 용담, 톱풀을 심어 사람의 발길을 부르고 있다. 토종허브인 박하, 방아(배초향), 차조기, 들깨도 심었다.



[그림 6] 산작약 심기

또한 지피식물인 긴병꽃풀, 자주광대나물, 민트, 헤어리베치를 심었고, 할미꽃, 엉겅퀴, 수영 등은 밭둑에 자생한다.

〈표 4〉 시범포에 심은 토종과일나무 목록

작물명	과실명	수집 지역	나무 특성	과실 특성 ¹
가래나무 (쪽가래나무)	가래	보성군	하트모양	하트모양. 실하고 맛이 고소하고 진함
꾸지뽕나무	꾸지뽕	장흥군	가시 없는 나무 선발	맛이 좋음
다래	개다래	-	-	-
	산다래	무주군	-	하트모양 열매가 잘지만 맛이 좋다
	쥐다래	-	-	-
대추	대추	장흥군	-	알이 잔 약대추
	산대추	제천시	-	-
돌베나무	돌베	인제군	-	-
	백운배 실생	광양시	남부지방 나무	과실로는 먹기 어렵지만 물김치를 담가 먹을만 하다.
	위봉배	완주군	접수를 잘라 돌베 에 접을 붙인 나무	-
	청배	장흥군	남부지방 나무	-
	청실배 실생	진안군	접을 붙여 복원하 고자 밑나무로 기 르고 있음	어미나木の 열매를 보면 약용,가공용 으로 쓸만하다.
모과나무	모과	무주군	-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작지만 향이 좋음
		장흥군	-	-
복숭아	개복숭	강화군	-	-
	겉복숭	인제군	겉꽃이 핼	-
	수양홍도	-	가지가 늘어져 자람	제대로 익으면 먹을 만함

살구나무	살구실생	포항시	-	-
	토종살구	-	오래전 정농회에서 구해온 나무	열매가 괜찮음
오얏	꽤	삼척시	-	-
	록리	문경시	-	잘지만 노랗게 익음 단맛, 신맛 어우러짐
	오야주	홍천군	-	단맛. 붉음.
	오얏	제천시	-	-
	옹예	무주군	-	-
으름나무	으름	무주군	시범포에 자생	-
		원주시	-	-
정금나무	완주	완주군	-	-
탱자나무	탱자	문경시	-	-

주1: 직접 확인한 과실 특성만 작성하였음

나. 토종과일나무 번식

토종과일나무는 돈이 있어도 온·오프라인 묘목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묘목을 소량 생산해 파는 개별농가가 가뭄에 콩 나듯 있을 뿐이다. 시범포에 심은 묘목 중 구매한 것은 인제 돌배나무와 수양홍도 두 가지였다.

토종과일나무 보존을 위해 시범포를 통해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고 소량이나마 생산하는 게 목표다. 토종과일나무마다 번식법을 공부하며 하나씩 실험하고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씨로 심어(실생묘) 번식

과일나무는 오랫동안 접목을 통해 번식했기에 씨로는 어미나무와 같은 나무를 얻기 힘들다. 하지만 호두나무, 가래나무, 모과나무는 아직까지 씨로 심어도 어미나무와 같은 나무가 나올 확률이 높다.

2) 밑나무 만들기 및 접목

능금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미나무와 같은 확률이 낮으므로 접을 붙이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현대 농학의 고서 임원경제지 「만학지」를 참고하였을 때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밑나무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밑나무는 공대(共臺)⁷⁾이다.

공대로 나무를 만들기 위해 먼저 씨앗부터 구하고, 씨앗을 심어 밑나무 생산을 시작했다. 후에 밑나무가 적절히 자랐을 때 접목을 하여 후계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3) 꺾꽂이(삽목)

꺾꽂이(삽목)로 번식 가능한 나무는 꺾꽂이로 번식할 예정이다.



꺾꽂이



접목

[그림 7] 토종과일나무 번식 방법

4) 뿌리번식

토종과일나무 가운데 뿌리 번식을 하는 나무가 있다. 뿌리가 뺏어 나가다 땅 위로 새 줄기를 내는 나무다. 이 경우, 어미와 똑같은 나무를 뿌리와 새 줄기까지 갖추어 얻을 수 있다.⁸⁾ 토종오얏, 앵두, 양앵두, 토종대추, 다래, 으름이 뿌리번식을 하는 나무다.

7) 접수와 같은 종의 밑나무이다.

8) 묘목상에서 파는 나무는 대부분 접을 붙인 나무로 밑나무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이 경우는 뿌리에서 올라온 줄기를 옮겨 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결론 및 논의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토종과일나무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뜰에서 토종과일나무를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과류실은 사과유전자원이 1,400종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토종과일나무인 능금은 딱 두 종류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도입종이다. 외국 도입종은 사라져도 다시 외국에서 들여올 수도 있지만, 능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듯하다. 농촌진흥청이 완주로 이전할 때 수원에 있던 나무들은 접수만 뜨고 파쇄 처리되어 자하문능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이유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물관 들머리에 있는 능금은 고려시대부터 천년을 살아온 나무이다. 능금을 먹어보니 시중에 파는 미니사과보다 과실이 크고 달았다.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에서 천년을 산 능금을 되살려, 공공기관의 기념수로 심고, 능금나무의 어린 묘목을 키우는 등 토종과일나무 보존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이어져 온 토종과일나무를 공공기관부터 보호하고 식재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토종과일나무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능금나무(평창군 소재)



능금(사과연구소)

[그림 8] 능금나무와 열매(능금)

진안 마이산 은수사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청실배나무가 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자체가 은수사 청실배나무 후계목을 생산해 마이산 진입로에 가로수로 심으면 어떨까? 꽃도 예쁘고,

오래 살고, 더 나아가 진안 주민들에게 분양해 마을회관 마당에 심어도 좋을 것이다. 좋은 토종나무를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 가운데 토종과일나무를 잘 살려 성공한 사례가 있다. 강화군은 강화토종 장준감을, 문경시는 문경토종 비단감을 살려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선례처럼 우리의 토종과일나무를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촉구된다.



대아수목원 후계목 동산



비단감(문경시) ©경북일보

[그림 9] 후계목 식재 사업

나아가 나무직불금과 토종과일나무 시범포 조성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전북 위봉산성 둘레에 자생하여 위봉배라 이름 붙은 배나무가 있다. 위봉배가 딱 한 그루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가지를 잘라내 버렸다.



[그림 10] 위봉배(완주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토종과일나무이지만 길을 새로 내거나 집을 고칠 때 언제든지 손쉽게 베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래된 나무만을 천연기념물로 삼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토종나무라면 마땅히 지켜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나무직불금을 제안한다. 나무 주인이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그 나무를 등록 관리하고, 해마다 소정의 나무직불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쉽게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토종과일나무 시범포를 조성하려면 정부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농업기술센터 작목반에 주어지는 기본지원금도 받을 길이 없다. 시범포를 조성하려면 자비와 자기 노동력만으로 감당해야 한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름 없는 나무를 하나씩 찾아, 씨를 받아 밑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접을 붙여, 열매까지 보려면 십 년 이상이 걸리는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각 지자체와 민관기관에서 토종유전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진. 2020. 『궁궐의 우리나라』. 놀와.
- 서유구. 2010. 『만학지』. 소와당.
- 안완식. 2009. 『한국토종작물자원도감』. 이유.
- 안완식. 2011. 『우리 매화의 모든 것』. 놀와.
- 안완식. 2020. 『내가 찾은 토종자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이춘녕. 1964. 『이조농업기술사』. (사)한국연구원.
- 이호철. 2002. 『한국 농금의 역사, 그 기원과 발전』. 문학과 지성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 genebank.rda.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